

다음 주 후반까지 국지적 집중호우 예상

농작물·시설물 관리 안전 기해야

농진청, 배수로 정비·과수원 지주시설 점검 등 당부

다음 주 후반까지 지역별로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농진청(청장 조재호)은 23일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관리를 당부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23일 오후부터 24일 새벽 사이 전국에 시간당 30~50mm 수준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고,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랜 가뭄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농작물 생육 불량, 과수 열매 터짐, 병해충 발생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작물별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논·밭둑이나 제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살펴야 한다. 집중호우 예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미리 논둑에 물꼬를 만들고, 비닐을 덮어 흙이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배수로 잡초를 제거해 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많은 비로 논이 침수 또는 관수됐을 경우 비 잎 끝부분이라도 물 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을 빼주고 물이 빠진 뒤에는 새 물로 걸러대기를 해 뿌리 활력을 촉진해야 한다.

밭작물과 채소의 경우 습해 예방을 위해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고 재배지에 덮어둔 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꼭 땅에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비바람에 작물이 쓰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참깨는 3~4포기씩 묶어주고, 고추는 줄 지주와 개별 지주를 보강한다.

비가 그친 뒤 쓰러진 작물은 바로 세워주고, 겹흙이 씻겨 내려갔을 경우 포기 별로 흙을 보충한다. 무름병, 돌립병, 탄저병 등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방제해야 한다.

과수원은 내부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나무 밑에 풀을 가꾸는 초생재배 구역의 풀을 베어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밑식재배를 하는 과수원에서 내부에 설치된 철선 지주를 점검하여 선이 팽팽한지 확인하고, 나뭇가지는 지주시설에 고정해줘야 한다. 집중호우가 내린 뒤 열매, 잎·줄기가 묻은 오물을 씻어주고 겹무늬썩음병, 점

무늬나뭇병 등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방제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주변에 빗물이 고여 가축이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를 점검하고, 축사 인입에 설치된 전기시설을 반드시 살펴 감전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가축 먹이는 습하거나 빗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곳을 피해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먹이를 줄 때는 사료의 변질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농진청청정 재해대응과 노형일 과장은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외 농작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호남·제주 지역통계발전협의회

호남지방통계청(청장 김대호)은 23일 홀리데이인 광주에서 호남·제주 지역 광역자치체,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022년 호남·제주 지역통계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예년과 달리 호남·제주의 통합 추진으로 4개 광역자치체의 현안사업 공유와 호남청 중장기 발전방안,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및 확산, 지역통계서비스 확대, 광주 통계데이터센터(SDC) 운영 활성화 등 호남·제주 지역통계 허브역할 강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 광주 통계데이터센터(SDC)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센터이용 서비스를 2022년까지 일시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검토·반영해 지역민이 쉽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호 청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학계, 연구원 등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향후 호남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호남·제주 지역통계의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평화1 등 11개 단지 대상 단지 내 시설물 전반 안전점검

I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안창진)은 7월부터 약 2개월간 전주평화1 등 11개 단지 1만,188호를 대상으로 놀이터 등 단지 내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IH전북지역본부의 선제적 안전 조치로 단지 내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입주민과 관리소직원들에게 보다 더 안전한 거주환경과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안전점검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안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용역으로 진행되며,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올 하반기 내에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안전점검 시설은 입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시설, 놀이터, 주차장 보행로 등 공용시설과 관리소 직원의 주요 근무 장소인 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등이다. 김중평 IH 전북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이번 시설물 안전점검을 계기로 IH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관리소 근무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IH ESG 경영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어촌 마을자치연금 추진을 위한 MOU 체결식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2일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은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4개 기관과 어촌마을 자치연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에서 어촌까지 '마을자치연금' 확대

국민연금, 해수부 등과 협약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22일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은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4개 기관과 어촌마을 자치연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과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 한국어촌어항공단 박경철 이사장, 수협은행 김진규 행장 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명환 사무총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어

촌마을 자치연금'의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어촌마을 자치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추진 중인 마을자치연금을 해양수산부 등 4개 기관과 협력해 어촌마을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어촌 체험휴양마을의 참여 신청을 받아 4개 마을을 선정하고 연내 자치연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을자치연금은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완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역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지방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마을에 수익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6월 현재, 전국 1호인 익산 성당포구마을과 2호인 원주 도계마을 58명의 어르신들이 매월 자치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박정배 국민연금 이사장 직무대행은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마을자치연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어촌지역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확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올 상반기 우수중기 4곳, 중기부장관 표창

모션다이나믹스 최윤환 대표

테라릭스 김태영 대표 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23일 전북중기청에서 2022년 상반기 우수중소기업 4곳을 선정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확대, 사회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으로 높은 성과를 보인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주)모션다이나믹스 최윤환 대표이사는 다수의 모션플랫폼 분야 인증을 획득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개발 역량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수소연료전지 개발 기업인 (주)테라릭스 김태영 대표이사는 기존 제품 대비 성능을 월등하게 향상시키는 등 연료전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업회사법인(유)신기계 김중성 대표는 3대째 전통 국밥의 기업을 이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3일 전북중기청에서 2022년 상반기 우수중소기업 4곳을 선정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도내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전북 소상공인 프로보노단에 재능기부 형태로 멘토단에 참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인 대우전자부품(주)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매년 신규 인재 채용으로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전북중기청 신재경 청장은 "여러한 여건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기업을 혁신적으로 경영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역동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JB카드로 여행상품 결제시 청구할인 3% 혜택 제공

전은·하나투어, 공동 마케팅 협약 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23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와 상호협력 체계 구축 및 상호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하나투어 홈페이지에서 환율 우대 쿠폰(최대 90%)과 JB카드로 여행 상품 결제 시 청구할인 3%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하나투어 여행상품 구매자 중 전북은행 JB 여행스토리 외화적금 가입자의 경우 하나투어 캐시백 3%와 하나투어 마일리지 1%를 별도로 제공 받게 돼 이용하는 고객의 혜택이 강화된다는 매력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전북은행과 여행사 간의 협업이라는 의미가 크다"면서 "전북은행과 하나투어 고객이 계속해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등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엔데믹에 맞춰 고객 여행 수요에 부응하고자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고객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성공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말레이 공무원 'K-공간정보 배우러 왔어요'

LX공사 본사서 현장견학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가 지난 22일 LX공사 본사에서 말레이시아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현장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운영 중인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정부와 공무원 역할'을 주제로 한 교육으로 K-공간정보의 발전과 민·관·산·학·연 협업 모델을 살펴보고 디지털트윈 등의 도입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LX공사를 방문한 말레이시아 공무원단은 선거관리위원회, 과학기술혁신부

소속의 중견관리자(서기관·사무관급) 20명이다. 이들은 LX공사의 강연을 통해 K-공간정보 발전과정과 협업 모델을 살펴보고 코타키나발루 등 해외 11개국에 수출된 디지털트윈의 역할과 성과, 노하우를 확인했다.

LX공사 최송욱 공간정보본부장은 "디지털트윈 등 한국형 스마트시티 핵심기술은 해외에서 불법 주정차·교통문제 해결,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K-공간정보와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말레이시아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22일 LX공사 본사에서 말레이시아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현장견학을 진행했다.

취약 돌봄대상 농업인 지원

NH농협 남원시지부·운봉농협

NH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권오정)와 운봉농협(조합장 서영교)은 운봉읍에 거주하는 관내 돌봄대상자 어르신을 찾아 오래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 취약농업인 지원사업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활동은 생활불편을 겪는 돌봄대상자 어르신들이 '농업인행복센터'로 상담을 통해 지원을 요청해 진행된 사업으로, NH농협중앙회남원시단은 현장실사를 거쳐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결해드렸다.

권오정 지부장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행복센터(1522-5000)는 70세 이상의 고령·취약한 홀몸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말벗 등 정서적 위로 제공, 생활불편 해소, 긴급출동 연계와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자 등록은 인근 농·축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